

 금융위원회	<h2 style="margin: 0;">보도참고자료</h2>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7.3.10.(월) 배포시	배포	2017.3.10.(월)
책임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기한(02-2100-2666)		담당자	박보라 사무관 (02-2100-2668)

제 목 : 머니투데이(17.3.13일자) “서민 재산 늘려주겠다던 ISA, 10개중 4개 원금 까먹었다” 제하의 기사 관련

< 보도 내용 >

- 머니투데이는 2017.3.13.(월) “서민 재산 늘려주겠다던 ISA, 10개중 4개 원금을 까먹었다”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지난 1월말 기준, 은행 9곳, 증권사 15곳, 총 24개 금융사가 운용하는 193개 일임하여 ISA 상품의 최근 6개월 평균수익률은 0.49%(수수료 차감)다. 전체 상품 중 최근 6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품은 69개(35.75%), 6개월 수익률이 1%도 안되는 상품은 무려 138개(71.50%)에 달한다”
 - “ISA의 부진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특성과 달리 수익률이 낮은 대신 안정적인 편입자산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. 신탁형 대부분 예·적금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일임형도 채권형펀드, MMF 등 안정성을 추구하는 상품에 집중 투자해 고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.”고 보도

< 사실 관계 >

- ‘17.3.3일 기준, 전체 ISA 가입계좌수에서 투자자가 편입상품을 직접 결정하여 투자하는 신탁형 ISA(투자자 자기주도형)가 차지하는 비중은 88.6%로 압도적으로 많으며
 - 반면, 금융회사가 투자자자금을 운용해주는 일임형 ISA(금융회사 운용형)는 11.4%에 수준
- ➔ 현재 공시되는 수익률은 “일임형 ISA”의 수익률로서, 전체 ISA 계좌의 1/9에 불과한 일임형 ISA의 수익률로 전체 ISA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
- 또한, ISA는 3~5년의 장기 투자상품으로 각 금융회사는 운용 기간에 부합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·운용하는 상품임
 - ➔ 6개월의 단기 수익률로 ISA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- 한편, 일임형 ISA는 투자자의 위험추구 성향에 따른 맞춤형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, 초저위험·저위험·위험중립형·고위험·초고위험 등 다양한 위험도의 모델포트폴리오(MP)를 운용
 - 편입자산의 종류는 MP의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며, 저위험 MP는 채권형펀드 등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, 고위험 MP는 국·내외 주식형 펀드 등 상대적으로 고위험·고수익 상품을 편입하여 운용함
- ➔ 따라서, 일임형 ISA는 MP의 위험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며, 초고위험 MP의 경우,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10%가 넘는 MP도 있어, 결국 일임형 ISA의 수익률은 MP의 성격과 금융회사의 역량에 의해 좌우됨
 - 따라서, 금융당국은 수익률 공시, 계좌이전제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임형 ISA의 금융회사간 경쟁을 유도 중

□ 또한, 일임형 ISA 가입금액의 85.3%가 은행권에서 가입한 자금으로, 일임형 ISA의 국내 채권형펀드, MMF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은행권 고객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

* 은행권에서 초저위험.저위험 MP의 판매가 활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됨

➔ 일임형 ISA 편입자산 비중은 투자자가 본인의 위험성향에 따라 MP를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임

□ 신탁형 ISA(투자자 자기주도형)의 경우에도, 투자자가 편입자산을 직접 선택하여 투자하는 상품으로, 예·적금 투자비중이 높은 것은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임

< 업권별 편입자산 현황(17.1월말 기준, 단위 :%) >

순위	일임형					
	은행 (5,001억)		증권 (372억)		전체 (5,373억)	
1	국내채권형F	41.7	파생결합증권	49.7	국내채권형F	39.3
2	MMF	26.1	RP	9.7	MMF	24.8
3	해외채권형F	7.9	MMF	7.9	해외채권형F	7.7
4	해외주식형F	7.7	국내채권형F	7.2	해외주식형F	7.4
5	국내혼합형F	5.5	예적금등	5.7	국내혼합형F	5.3

순위	신탁형					
	은행 (2조 2,2721억)		증권 (6,912억)		전체 (2조 9,651억)	
1	예적금	79.7	파생결합증권	55.7	예적금	66
2	파생결합증권	16.0	예적금	21.8	파생결합증권	25.3
3	국내채권형F	1.7	RP	12.4	RP	3
4	국내혼합형F	1.2	ETF	2.9	국내채권형F	1.6
5	ETF	0.3	국내혼합형F	1.7	국내혼합형F	1.3